

# 勤農歌



[해제]

작자는 김주희이며, 창작시기가 정확치 않는 가사작품으로 동학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용담유사(龍潭遺辭)』 권 18에 실려 있으며, 『용담유사』는 경상북도 상주(尙州)에서 1924년에 동학교당을 설립했던 김주희(金周熙, 1866-1944)가 국한문 혼용본과 순한글본으로 하여 2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용담유사(龍潭遺辭)』에 실린 작품 중 <검결(劍訣)>을 제외하고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도수사(道修詞)>, <권학가(勸學歌)>,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등 8편을 포함하여 모두 108편의 가사 작품이 실려 있다. 여기서 작자 김주희는 동학교를 창시한 인물로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孫秉熙, 1861-1922)가 천도교를 창시하여 순수교단을 표방하고 이념에서 벗어나자 이와 반하여 당시 충북 보은에 피신해 있던 김주희가 1915년에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종교를 창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경천교(敬天敎)라 하였으나 후일 동학교로 개칭하였다. <근농가>는 국한문 혼용으로 된 필사본이다. 작품이 들어있는 책 맨앞에는 ‘龍潭遺辭之第十八相和代明歌卷一’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相和代明歌>라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팔괘변역가(八卦變易歌)>, <근농가(勤農家)>, <경세가(警世歌)>, <원시가(原時歌)>, <몽중가(夢中歌)> 등 5편의 작품을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모두 4음보 56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사는 천하의 중요한 근본임을 강조한 작품이다. 또한 제때에 농사를 지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동학가사가 지니고 있는 교훈적, 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원문]

그눔에게 因緣되야 일리저리 슬여가면  
 修心修德 故舍하고 私邪慾心 닐러나서  
 온갖雜病 다싱기애 그리되고 修德할씩  
 修德하지 못하오면 오는運數 웃지알씩  
 오는運數 모를고서 天道時中 못行하면  
 道德君子 姑舍하고 一身難藏 질거시니  
 仔細보고 씩다라서 疑心疑字 破惑하고  
 台乃敎訓 生覺히서 修心正氣 다시하고  
 시권되로 施行하서 次次次次 가자서라  
 次次次次 가다가서 春末夏初 씩가되면  
 너도得意 나도成功 疑心疑字 업슬데니  
 나의敎訓 生覺거던 疑心말고 破惑하라  
 오는運數 그러키로 前後事蹟 업는노리  
 拙筆拙文 지어니아 大綱臍白 傳히주니  
 仔細보고 기다라서 熟讀詳味 하여니아  
 사람사람 和히볼씩

勤農歌

御化世上 사람덜아

時景차라 노리불너 萬人百姓 和히보세  
 矢口矢口 弓弓乙乙 造化中에 綠樹靑林  
 鳥乙矢口 松松家家 지난後에  
 弓弓乙乙 씩가온니 利在田田 밧슬가세  
 언의밧슬 가갓말가 亞字田을 만이가아  
 十勝之地 알아써던 五穀百穀 만이심어  
 失時말고 勤農하세  
 靑槐滿庭 씩가온가 白楊無芽 其時로다  
 東風三月 御柳斜는 잇씩두고 닐음인가  
 春風三月 도라온니 景概絶勝 鳥乙矢口  
 綠樹靑林 조흔景에 千峰萬壑 더杜鵑은  
 봄갈기을 직촉하니 牛性在野 씩가온가  
 밧부도다 밧부도다 밧부도다 어서밧비  
 밧슬가라 小滿後 前後三에 龍潭水를  
 만이딴여 移種하기 밧부도다  
 草野人民 農夫덜아 農事씩가 밧버온니  
 春日에 困치만은 困한장 깁흔심을  
 어서어서 씩다라셔 失時말고 勤農하세  
 天下大本 農事오니 다시할일 바이업네  
 一失農時 하거디면 秋無所拾 업슬테니  
 仔細보고 勤農하쇼  
 이라저라 더農夫 牛性在野 알앗거던  
 平原廣野 너은들에 疑心말고 밧슬가쇼  
 疑心安코 쉬지말고 勤耕하면 天時또한  
 씩가잇서 雨露之澤 나릴께니  
 그農事 失時할씩 功力되로 다될테니  
 家産饒足 豊登일세 일은農時 모를고셔  
 懈怠한 저사람덜 씩가는줄 모를고셔  
 勤農안코 안갓스니 愛恒하기 다시업네  
 歲月이 如流하야 秋收할씩 도라온들  
 지은農事 업셔스니 그飢寒을 免할손가  
 그飢寒을 못免하면 그貧賤을 어이하리  
 이일저일 씩다라셔 子乃身勢 生覺거던  
 뒤지말고 勤農하쇼  
 自古理致 不勞自得 업는빅니  
 勤耕안코 되올쇼며 懈怠하고 되올손가  
 子乃사람 生覺거던 農事씩를 일치말고  
 부되부되 근농하쇼

## 勤農歌

四月南風 조흔바람 萬物和暢 하거만는  
大小麥 秋收함은 큰農事의 밋탕일세  
만코만은 저農夫덜 어서어서 식달라셔  
大小麥을 거두우고 큰農事를 심써보세  
이야이야 더사람덜  
靑林世界 조흔景의 늡흔峯과 집흔모슬  
意思업시 엇지할까 時運時景 돌너보니  
理花道花 滿發하야 柯枝柯枝 丹粧하니  
玩花하는 더少年 甓슬싸라 놀씩로다  
만코만은 더少年들 甓슬싸라 놀다가셔  
春末夏初 식요거든 牧丹花을 구경가세  
時維六月 三夏日에 太陽太陰 習道하야  
다시開闢 定法하니 萬法歸一 다시되야  
是化是豊 도라온다 矢口矢口 鳥乙矢口  
勤耕하든 더農夫를 擊壤歌를 불으면서  
含哺鼓腹 질거한이 太古淳風 조흔씩라  
안이놀고 무엇하리 놀고놀고 놀라보세

## 警世歌

人間萬事 덕근손이 漢陽城中 도라들러  
時局形便 살허본이 可笑可歎 안일너가  
東西洋 더列國이 協相文明開化 한다던니  
開明은 姑舍하고 兵器進步 溫然故며  
抑强扶弱 相求之道 以德報人 한다더니  
義理난 姑舍하고 氣勢主張 그썸일세  
禮樂法律 列學中에 人之村質 가려니여  
文明政治 하조하나 揣其末 이世上의  
物慾之腸 가큰마음 冒沒廉恥 그썸일세  
世情變態 더러하니 陷地死地 더百姓을  
그뉘라셔 건져닐소 以食爲天 알건만은  
絶力飢寒 溫일인지 國之根本 百姓인디  
本固邦寧 몰나스니 그안이 可歎인가  
先王制度 업서씨니 忠臣烈士 그닐년고  
國家保護 姑舍하고 一身保護 전허몰나  
皇皇汲汲 이世上에 氣勢升降 偏黨되야  
蕭牆之禍 날노나니 外國壓制 더욱만타  
聖哲하신 우리皇上 布德布化 하엿씨나  
그뉘라셔 奉命할고

# 勤農歌

政府公事 一日三變 밋들百姓 전허읍니  
一亂一治 盛衰之理 自古聖賢 일너스니  
亞務理 이世上도 天必有意 하시리라  
天降嘉種 조흔種子 人間生靈 살이야고  
萬百姓에 傳播하여 山田水田 심을적에  
折草糞土 만이하여 深耕易耨 除草하니  
病于夏畦 더農夫는 晝夜不徹 勤力하나  
修其人事 할분이요

[현대역]

그눔에게 인연(因緣)되어 이리저리 끌려가면  
 수심수덕(修心修德) 고사(故畝)11하고 사사욕심(私邪慾心) 일어나서  
 온갖 잡병(雜病) 다 생기어 그리되고 수덕(修德)할까  
 수덕(修德)하지 못하면 오는 운수(運數) 어찌 알까  
 오는 운수(運數) 모르고서 천도시중(天道時中) 못 행(行)하면  
 도덕군자(道德君子) 고사(姑捨)하고 일신난장(一身難藏) 즐겨하니  
 자세(仔細)히 보고 깨달아서 의심의자(疑心疑字) 파혹(破惑)하고  
 대내교훈(台乃教訓) 생각(生覺)해서 수심정기(修心正氣) 다시 하고  
 시킨대로 시행(施行)해서 차차차차(次次次次) 가자서라  
 차차차차(次次次次) 가다가서 춘말하초(春末夏初) 때가 되면  
 너도 득의(得意) 나도 성공(成功) 의심의자(疑心疑字) 없을테니  
 나의 교훈(教訓) 생각(生覺)커든 의심(疑心)말고 파혹(破惑)하라  
 오는 운수(運數) 그럴기로 전후사적(前後事蹟) 없는 노래  
 줄필줄문(拙筆拙文) 지어내어 대강급백(大綱臚白) 전(傳)해 주니  
 자세(仔細)히 보고 깨달아서 숙독상미(熟讀詳味) 하여내어  
 사람사람 화(和)해 볼까

근농가(勤農歌)

어화1 세상(御化世上) 사람덜아  
 시경(時景)2따라 노래불러 만인백성(萬人百姓)3 화(和)4해보세  
 시구시구(矢口矢口)5 궁궁을을(弓弓乙乙)6 조화중(造化中)에 녹수청림(綠樹靑林)7  
 조을시구(鳥乙矢口)8 송송가가(松松家家) 지난후(後)에  
 궁궁을을(弓弓乙乙) 때가오니 이재전전(利在田田) 밭을가세  
 어느밭을 갈단말가9 아자전(亞字田)10을 많이갈아  
 십승지지(十勝之地)11 알았거든 오곡백곡(五穀百穀)12 많이심어  
 실시(失時)13말고 근농(勤農)14하세  
 청괴만정(靑槐滿庭)15 때가온가16 백양무아(白楊無芽)17 기시(其時)18로다  
 동풍삼월(東風三月)19 어류사(御柳斜)20는 이때두고 이름인가 21  
 춘풍삼월(春風三月) 돌아오니 경개절승(景概絶勝)22 조을시구(鳥乙矢口)  
 녹수청림(綠樹靑林) 줄은경(景)에 천봉만학(千峰萬壑)23 저두견(杜鵑)24은  
 봄갈기를 재촉하니 우성재야(牛性在野)25 때가온가  
 바쁘도다 바쁘도다 바쁘도다 어서바빠  
 밭을갈아 소만후(小滿後)26 전후삼(前後三)27에 용담수(龍潭水)를  
 많이대어 이종(移種)28하기 바쁘도다  
 초야인민(草野人民)29 농부(農夫)들아 농사(農事)때가 바빠오니  
 춘일(春日)30에 곤(困)치만은31 곤(困)한장 깊은꿈을  
 어서어서 깨달아서 실시(失時)말고 근농(勤農)하세

천하대본(天下大本)32 농사(農事)오니 다시할일 바이없네33  
 일실농시(一失農時)34 하게되면 추무소습(秋無所拾)35 없을테니  
 자세(仔細)36보고 근농(勤農)하소  
 이래저래 저농부(農夫) 우성재야(牛性在野) 알았거든  
 평원광야(平原廣野)37 넓은들에 의심(疑心)38말고 밭을가소  
 의심(疑心)않고 쉬지말고 근경(勤耕)39하면 천시(天時)40또한  
 때가있어 우로지택(雨露之澤)41 내릴게니  
 그농사(農事) 실시(失時)할까 공력(功力)42대로 다될테니  
 가산요족(家産饒足)43 풍등(豐登)44일세 이런농시(農時) 모르고서  
 해태(懈怠)45한 저사람들 때가는줄 모르고서  
 근농(勤農)않고 앓았으니 애달(愛怛)46하기 다시없네  
 세월(歲月)이 여류(如流)47하여 추수(秋收)48할때 돌아온들  
 지은농사(農事) 없었으니 그기한(飢寒)을 면(免)할손가49  
 그기한(飢寒)50을 못면(免)하면 그빈천(貧賤)51을 어이하리  
 이일저일 깨달아서 자내신세(子乃身勢)52 생각(生覺)커든  
 뉘지말고 근농(勤農)하소  
 자고이치(自古理致)53 불로자득(不勞自得)54 없는바니  
 근경(勤耕)않고 되올소며 해태(懈怠)하고 되올손가  
 자내(子乃)사람 생각(生覺)커든 농사(農事)때를 잃지말고  
 부디부디 근농하소  
 사월남풍(四月南風)55 좋은바람 만물화창(萬物和暢)56 하건만은  
 대소맥(大小麥)57 추수(秋收)함은 큰농사(農事)의 바탕일세  
 많고많은 저농부(農夫)들 어서어서 깨달아서  
 대소맥(大小麥)을 거두우고 큰농사(農事)를 힘써보세  
 이야기야 저사람들  
 청림세계(靑林世界)58 좋은경(景)의 높은봉(峯)과 깊은못을  
 의사(意思)없이 어찌할까 시운시경(時運時景)59 둘러보니  
 이화도화(梨花道花)60 만발(滿發)61하여 가지가지(柯枝柯枝) 단장(丹粧)62  
 하니  
 완화(玩花)63하는 저소년(少年) 꽃을따라 놀때로다  
 많고많은 저소년(少年)들 꽃을따라 놀다가서  
 춘말하초(春末夏初)64 때오거든 목단화(牧丹花)65를 구경가세  
 시유육월(時維六月)66 삼하일(三夏日)67에 태양태음(太陽太陰) 습도(習道)68하여  
 다시개벽(開闢) 정법(定法)69하니 만법귀일(萬法歸一) 다시되어  
 시화시풍(是化是豐)70 돌아온다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근경(勤耕)하던 저농부(農夫)들 격양가(擊壤歌)71를 부르면서  
 함포고복(含哺鼓腹)72 즐겨하니 태고순풍(太古淳風)73 좋은때라  
 아니놀고 무엇하리 놀고놀고 놀아보세

경세가(警世歌)

인간만사(人間萬事)1 겪은손이2 한양성중(漢陽城中) 돌아들어  
 시국형편(時局形便)3 살펴보니 가소가탄(可笑可歎)4 아닐런가  
 동서양(東西洋) 저열국(列國)5이 협상文明개화(協商文明開化)6 한다더니  
 개명(開明)7은 고사(姑捨)8하고 병기진보(兵器進步)9 웬연고(然故)10며  
 억강부약(抑強扶弱)11 상구지도(相求之道)12 이덕보인(以德報人)13 한다더니  
 의리(義理)14는 고사(姑捨)하고 기세주장(氣勢主張) 그뿐일세  
 예악법률(禮樂法律)15 열학중(列學中)16에 인지재질(人之村質)17 가려내어  
 문명정치(文明政治) 하자하나 취기말(揣其末)18 이세상의  
 물욕지장(物慾之腸)19 기른마음 모멸염치(冒沒廉恥)20 그뿐일세  
 세정변태(世情變態)21 저러하니 함지사지(陷地死地)22 저백성(百姓)을  
 그뉘라서 건져낼꼬 이식위천(以食爲天)23 알건만은  
 절력기한(絶力飢寒)24 웬일인지 국지근본(國之根本)25 백성(百姓)인데  
 본고방령(本固邦寧)26 몰랐으니 그아니 가탄(可歎)인가  
 선왕제도(先王制度)27 없었으니 충신열사(忠臣烈士)28 그뉘러고  
 국가보호(國家保護) 고사(姑捨)하고 일신보호(一身保護) 전혀몰라  
 황황급급(皇皇汲汲)29 이세상(世上)에 기세승강(氣勢升降)30 편당(偏黨)31어  
 소장지화(蕭牆之禍)32 날로나니 외국압제(外國壓制)33 더욱많다  
 성철(聖哲)34하신 우리황상(皇上)35 포덕포화(布德布化)36 하였으나  
 그뉘라서 봉명(奉命)37할꼬  
 정부공사(政府公事)38 일일삼변(一日三變)39 믿을백성(百姓) 전혀없네  
 일란일치(一亂一治)40 성쇠지리(盛衰之理)41 자고성현(自古聖賢)42 일렀으니  
 아무리(亞務理) 이세상(世上)도 천필유의(天必有意)43 하시리라  
 천강가종(天降嘉種)44 좋은종자(種子) 인간생령(人間生靈)45 살릴려고  
 만백성(萬百姓)에 전파(傳播)46하여 산전수전(山田水田)47 심을적에  
 절초48분토49(折草糞土) 많이하여 심경이뉴(深耕易耨)50 제초(除草)51하니  
 병우하휴(病于夏畦)52 저농부(農夫)는 주야불철(晝夜不撤)53 근력(勤力)하나  
 수기인사(修其人事)54 할뿐이요



[각주]

- 11) 고사(故舍) : 고사(姑捨)'가 바른 표기.
- 1) 어화 : "노랫가락 따위에서 기쁜 마음을 나타내어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소리.
- 2) 시경(時景) : 이 때의 경치. 때에 따른 경치.
- 3) 만인백성(萬人百姓) : 수많은 사람들.
- 4) 화(和) : 서로 뜻이 맞아 사이좋음.
- 5) 시구시구(矢口矢口) : ‘얼씨구’와 같이 흥에 겨워서 가볍게 장단을 맞추는 소리.
- 6) 궁궁을을(弓弓乙乙) : 원래 태극을 뜻하는 것으로 궁을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삼태극(무극 태극 황극)을 일컫는 말. 가사작품에서는 후렴구로 쓰인다.
- 7) 녹수청림(綠樹靑林) : 청산녹수(靑山綠水)와 같은 말로 푸른 산과 푸른 물.
- 8) 조을시구(鳥乙矢口) : 줄을씨구.
- 9) 갈단말가 : 갈자는 말인가.
- 10) 아자전(亞字田) : 아(亞)자 모양으로 생긴 밭.
- 11) 십승지지(十勝之地) : 나라 안에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열 곳.
- 12) 오곡백곡(五穀百穀) : 오곡백과(五穀百果)의 뜻으로 온갖 곡식과 과일.
- 13) 실시(失時) : 때를 놓침.
- 14) 근농(勤農) : 부지런히 농사를 지음.
- 15) 청괴만정(靑槐滿庭) : 청괴불나무가 뜰에 가득참. 청괴는 인동과(忍冬科)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3미터이며, 나무의 속은 비어 있음. 잎은 마주나고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함.
- 16) 때가온가 : 때가 왔는가.
- 17) 백양무아(白楊無芽) : 백양나무에 아직 잎이 나지 않음. 백양은 사시나무라고도 하며 버드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
- 18) 기시(其時) : 이 때.
- 19) 동풍삼월(東風三月) : 봄바람 부는 삼월.
- 20) 어류사(御柳斜) : 대궐 버드나무가 비껴봄.
- 21) 이름인가 : 말하는 것인가.
- 22) 경개절승(景概絶勝) : 경치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게 좋음.
- 23) 천봉만학(千峰萬壑) :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24) 두견(杜鵑) : 두견이. 진달래.
- 25) 우성재야(牛性在野) : 소의 성품이 밭에 있다는 뜻으로 곧 소가 밭으로 나가 밭갈기를 시작해야 하는 때임을 암시.
- 26) 소만후(小滿後) : 소만이 지난 후에. 소만은 절기 이름으로 입하와 망종 사이에 있으며 음력 5월 21일 경.
- 27) 전후삼(前後三) : 3일 전후에.
- 28) 이종(移種) : 모종을 옮겨 심음.
- 29) 초야인민(草野人民) : 궁벽한 시골에 사는 백성.
- 30) 춘일(春日) : 봄날.
- 31) 곤치만은 : 피곤하지만은.

- 32) 천하대본(天下大本) : 천하의 가장 크고 중요한 근본.
- 33) 바이없네 : 어찌할 도리나 방법이 없음.
- 34) 일시농시(一時農時) : 한 때 농사짓는 철.
- 35) 추무소습(秋無所拾) : 가을에 소득을 얻을 수 없음.
- 36) 자세(仔細) :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함.
- 37) 평원광야(平原廣野) : 평평하고 넓은 들판.
- 38) 의심(疑心) :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 39) 근경(勤耕) : 부지런히 밭을 감.
- 40) 천시(天時) : 하늘의 도움이 있는 때. 때를 따라서 돌아가는 자연현상. 곧 계절, 밤과 낮, 더위와 추위 따위를 이른다.
- 41) 우로지택(雨露之澤) :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으로, 왕의 넓고 큰 은혜를 이르는 말.
- 42) 공력(功力) : 애써서 들이는 정성과 힘.
- 43) 가산요족(家產饒足) : 집안의 재산과 살림이 넉넉함.
- 44) 풍등(豐登) : 농사를 지은 것이 아주 잘됨.
- 45) 해태(懈怠) : 게으름이라는 뜻으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 46) 애달(愛怛) : 마음이 쓰여 속이 달아오르는 듯하게 되는 상태.
- 47) 여류(如流) : 물의 흐름과 같다는 뜻으로, 세월이 매우 빠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8) 추수(秋收) :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 49) 면할손가 : 책임이나 의무 등을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50) 기한(飢寒) : 배고픔과 추위.
- 51) 빈천(貧賤) : 가난하고 천함.
- 52) 자내신세(子乃身勢) : 자내는 ‘자네’의 이인칭 표현. 그대의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을 뜻함.
- 53) 자고이치(自古理致) : 예부터 전해오는 도리.
- 54) 불로자득(不勞自得) :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고도 하며 직접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음.
- 55) 사월남풍(四月南風) : 음력 4월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곧 여름바람.
- 56) 만물화창(萬物和暢) : 세상의 모든 것이 온화하고 맑음.
- 57) 대소맥(大小麥) : 대맥은 겉보리이며, 소맥은 밀을 뜻함.
- 58) 청림세계(靑林世界) : 궁을세계(弓乙世界)라고도 하며, 곧 이상적인 세계를 뜻함.
- 59) 시운시경(時運時景) : 시대의 운수나 경치.
- 60) 이화도화(梨花道花) : 이 꽃 저 꽃.
- 61) 만발(滿發) : 꽃이 활짝 피.
- 62) 단장(丹粧) :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 63) 완화(玩花) : 꽃놀이.
- 64) 춘말하초(春末夏初) : 늦봄과 초여름. 곧 봄이 가고 여름이 옴.
- 65) 목단화(牡丹花) : 모란화.
- 66) 시유육월(時維六月) : 유월이 왔음을 알림. 시유(時維)는 주로 제문(祭文)에 쓰이는 낱말로 어떤 내용에 대한 알림의 뜻을 가짐.

- 67) 삼하(三夏) : 여름의 석달.
- 68) 습도(習道) : 도를 닦음.
- 1) 인간만사(人間萬事) : 인간 세상의 온갖 모든 일.
- 2) 겪은손이 : 겪은 손님이.
- 3) 시국형편(時局形便) :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 4) 가소가탄(可笑可歎) : 터무니없이 우습거나 탄식함.
- 5) 열국(列國) : 여러 나라.
- 6) 협상문명개화(協商文明開化) : 문명을 개화시키는데 여럿이 서로 의논함.
- 7) 개명(開明) : 지혜가 계발되고 문화가 발달함.
- 8) 고사(姑捨) :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원본에는 고사(姑舍)로 표기되었으나 오기임.
- 9) 병기진보(兵器進步) : 전쟁에 쓰는 기구만 더 늘어남.
- 10) 연고(然故) : 연고(緣故)의 잘못된 표기. 까닭.
- 11) 억강부약(抑強扶弱) :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 12) 상구지도(相求之道) : 서로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도리.
- 13) 이덕보인(以德報人) : 덕으로써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뜻.
- 14) 의리(義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15) 예악법률(禮樂法律) : 예법과 음악 그리고 법률.
- 16) 열학(列學) : 여러 학문.
- 17) 인지재질(人之材質) : 사람됨의 자질.
- 18) 채기말(揣其末) : 그 끝을 헤아려봄.
- 19) 물욕지장(物慾之腸) : 재물을 탐내는 마음.
- 20) 모몰염치(冒沒廉恥) :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함.
- 21) 세정변태(世情變態) : 세상의 사정이나 형편이 달라짐.
- 22) 함지사지(陷地死地) : 함정에 빠뜨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땅.
- 69) 정법(定法) : 정해진 법칙.
- 70) 시화시풍(是化是豐) : 시화연풍(時和年豐)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며,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 상황을 말함. 시화세풍(時和歲豐)이라고도 함.
- 71)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함.
- 72)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 73) 태고순풍(太古淳風) : 태고시절의 순박한 풍속.
- 23) 이식위천(以食爲天) : 사람이 살아가는 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르는 말.
- 24) 기한(飢寒) : 배고픔과 추위.
- 25) 국지근본(國之根本) : 나라의 근본.
- 26) 본고방영(本固邦寧) :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함.
- 27) 선왕제도(先王制度) : 선대왕이 이루어놓은 제도.

- 28) 충신열사(忠臣烈士) : 충성을 다하는 신하와 절개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9) 황황급급(皇皇汲汲) : 몹시 급하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
- 30) 승강(升降) : 오르고 내림.
- 31) 편당(偏黨) : 한 당파에 치우침.
- 32) 소장지화(蕭牆之禍) : 재앙은 궁궐이나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에 ‘起禍蕭牆’에서 유래한 말.
- 33) 외국압제(外國壓制) : 외국의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누름.
- 34) 성철(聖哲) : 매우 현명하고 만사에 통달한 사람.
- 35) 황상(皇上) :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
- 36) 포덕포화(布德布化) : 천도교에서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천도교의 전도(傳道)를 이르는 말.
- 37) 봉명(奉命) : 임금이나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모심.
- 38) 정부공사(政府公事) : 나라의 공무(公務).
- 39) 일일삼변(一日三變) : 하루에 세 번이나 변할 만큼 아주 복잡한 상황.
- 40) 일란일치(一亂一治) : 난리가 난 후에는 태평한 시절이 온다는 뜻으로 ‘일치일란(一治一亂)’이 맞는 표현.
- 41) 성쇠지리(盛衰之理) : 성하고 쇠하는 이치.
- 42) 자고성현(自古聖賢) : 예부터 성현들이.
- 43) 천필유의(天必有意) : 하늘에 반드시 뜻이 있음. 곧 하늘의 이치.
- 44) 천강가종(天降嘉種) : 하늘에서 좋은 곡식을 내려줌. 시경(詩經) 에는 ‘탄강가종(誕降嘉種)’으로 표현되어 있음.
- 45) 생령(生靈) : 생명(生命).
- 46) 전파(傳播) : 전하여 널리 퍼뜨림.
- 47) 산전수전(山田水田) : 산에 있는 밭과 물이 늘 괴어 있는 논.
- 48) 절초(折草) : 거름이나 땔나무로 쓰기 위하여 풀이나 잎나무 따위를 땀.
- 49) 분토(糞土) : 썩은 흙.
- 50) 심경이뉴(深耕易耨) : 땅을 깊이 갈고 김매기를 잘함. 맹자(孟子) 에 나옴.
- 51) 제초(除草) : 잡초를 뽑아 없앴.
- 52) 병우하휴(病于夏畦) : 맹자(孟子) 에 나오는 구절로 ‘어깨를 올리고 아침하며 웃는 것은 여름에 밭일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다. 耨肩諂笑, 病于夏畦’에서 나온 것임.
- 53) 주야불철(晝夜不撤) :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 54) 수기인사(修其人事) : 사람이라면 마땅히 닦아야 할 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